

이재명 후보, 설 명절 앞두고 ‘폐지 수거 어르신’ 과의 동행 영상 공개 “어르신들의 헌신, 모두가 행복한 노후 보낼 수 있는 나라로 보답”

○ 이재명 후보, 폐지 수거 어르신의 폐지 무게 측정 및 하차 작업에 동행...명절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보 일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폐지 수거 어르신과 동행’ 영상을 공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메타버스 일정 중 동대문구를 방문해 폐지를 수거하는 80대 어르신을 만나 고충을 나누고, 인근의 한 고물상에 가서 폐지 무게를 측정하고 하차하는 일을 함께했다.

폐지 수거 현장은 노인 빈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도시 곳곳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나라는 부강해졌음에도 국민은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정에는 ‘끌림’의 김건운 대표와 허소영 매니저가 함께했다. 끌림은 경량 리어카에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벤처 기업이다. 이 후보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졌다”며 “공동체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돼 있다. 노년이 빈곤하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청년은 희망을 잃는다” 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과제” 라며 “청년도 노년도 내일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나라로 어르신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 고 밝혔다.